

안녕하세요, 썩과마늘입니다.

개인적인 국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일개 수험생이 웬 칼럼인가 싶을 수 있지만, 오히려 학생의 입장에서 글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말 역시, 아직 올해 수능을 접하지 못한 터라 100% 옳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 맹신하지 말고 얻어갈 것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와 관련된 제 프로필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88점
-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98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8점
-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작 100점

누군가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어릴 적 책을 읽었던 경험 덕이 아니냐 말할 수 있습니다. 허나 단순한 유년 시절의 경험 내지는 재능으로 치부하고 넘기다가 작년 6모에서 오만한 콧대가 꺾인 바 있기에, 마냥 재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 저는 백분위 100 성적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 '어떻게 국어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듭한 바 있고, 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얻어낸 생각들을 글로 체계화할 수 있을 만큼 정돈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Prologue. 국어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의 교정'입니다.

우리가 입시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가장 기형적인 과목을 꼽으라면 단언 국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학과 탐구의 경우 필수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영어의 경우에도 외국어인 만큼 일정량의 노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즉, 상술한 과목들의 경우 지식적인 측면 역시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하죠.

다만 국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는 우리의 모국어잖아요. 그냥 읽고 그냥 푼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처럼, 단순히 활자를 읽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근데 왜 사람에 따라 극단적이라고 표현해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단순한 지식적인 측면의 문제라면, 앞서 언급한 과목들처럼 관련된 지식을 더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허나, 국어에서 지식이라고 명명할 만한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언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어진 글을 읽고 푼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식적인 능력을 요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국어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의 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텍스트의 시험지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생각의 차이가 실력을 판가름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모든 국어 공부는 '동일한 텍스트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환원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1. 여러분만의 기출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만드세요.

기출. 또 그놈의 기출. 기출이 중요하다는 말은 어지간한 칼럼에서 정말 지겹도록 듣는 말일 겁니다. 국어 공부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저 역시 그랬어요.

‘기출 좋은 건 누구나 아는데, 기출을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그대로거나 떨어지던데?’

아직까지 한 번도 기출을 풀어보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실성을 탓하는 게 맞고, 지금은 기출을 풀고 공부했음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사실 기출을 공부했다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니 이번 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기출을 공부했다’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출을 공부했다는 것은, **본인만의 단순하고도 일관된 생각의 틀**을 만들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인만의’ 단순하고도 일관된 생각의 틀을 만드는 게 기출 공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어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의 교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죠. 즉,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기출을 활용하여 우리의 사고를 ‘평가원의 사고’와 일치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1-1 기출은 몇 개년을 보는 게 좋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최대한 많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반 동안 수능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감히 사건을 덧붙이자면, 최근 5개년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고, 그 외의 지문들은 전문가들의 선별을 통해 접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 지문들 중에서도 나름 쓸쓸한 게 많아서, 선별로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1-2 그래서 어떻게 기출을 활용하라는 거죠?

이게 이 글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수능 국어 공부의 95%는 기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렇기에 더욱 기출의 학습 방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본인이 직접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을 재고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직접 풀지 않는다면 후술할 내용이 전부 쓸모없어요. 시간은 문제 하나당 1분 30초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시간을 재고 풀어보셨다면, 시간제한 없이 천천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깊게 사고하면서 읽어보세요. 이 과정에서 문장, 어휘 등을 비롯해 헛갈렸던 부분들을 전부 표시하시고, 시간을 재고 읽었던 부분과 대비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면 총 4가지의 유형으로 문제가 분류될 겁니다.

가. 시간제한을 두고 풀었을 때 맞았고, 시간제한 없이 풀어도 맞은 문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내면에 암묵적인 형태로나마 사고 과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제한을 두고 풀었을 때 생겼던 논리적 비약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세요.

나. 시간제한을 두고 풀었을 때 맞았으나, 시간제한 없이 풀었더니 틀린 문제.

본인의 잘못된 사고를 검증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설을 보기 전에 본인의 생각 순서를 쭉 나열해보시고, 이를 해설의 내용과 대조하세요. 차이점을 짚고, 그 잘못된 사고를 반드시 찾아서 교정하셔야 합니다.

다. 시간제한을 두고 풀었을 때 틀렸는데, 시간제한 없이 풀었더니 맞은 문제.

이 경우에는 대개 시간이 촉박해서 풀지 못했던 게 큼니다. 이 경우 전반적인 한 세트 단위의 시간 관리 실패 혹은 특정한 문제에서의 시간 관리 실패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지문 읽는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후자에 대해 주목해봅시다.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어디에서 시간 관리를 하지 못했고, 왜 못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이를 교정하셔야 합니다.

라. 시간제한을 두고 풀었을 때 틀렸고, 시간제한 없이 풀어도 틀린 문제.

이건 본인이 체득하지 못한 논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입니다. '라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만큼은 해설을 수용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사고를 배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지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문은 정오를 판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설을 참고하며 하지 못했던 생각들 중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얻고 가시면 됩니다.

혹자는 어차피 수능 현장에서는 그렇게 분석해서 풀지 못하는데 왜 그리 시간을 소모해가면서 분석해야 하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저는 이러한 분석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스로 분석해보는 것만큼, 본인의 사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행위는 '현장에서는 써먹지 못하는 분석을 위한 분석'이 아닌, 약점 진단을 위한 것임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은 참신한 개념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고의 교정'과 직결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행동영역**이라는 개념입니다. 알고리즘(Algorithm)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수능 당일에 그리 많은 생각을 하면서 풀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배웠던 지식을 써먹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들이 기계적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인데요. 행동영역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행동을 통해 사고를 통제하는 것.

앞서 말한 과정을 통해 각자의 약점을 면밀히 체크했을 것입니다. 허나 그 약점을 극복하고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련된 문제를 더 풀어보거나, 다음에 잘해야겠다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긴장해서 손이 떨리고 머리가 굳어도 어떻게든 풀 수 있게끔, 기계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통해 '특정한 사고'를 강제적으로 유발시켜야 합니다.

3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모의평가에서 38번 문제를 틀린 경험이 있습니다. 선지에서 제시한 '관념적'이라는 어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모호하게 잡고 간 경험인데요. 그래서 저는 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통해 판단의 기준을 찾아 사고를 교정했고, '관념적'이라는 표현 한정어로 '관! 념! 적!'이라고 속으로 크게 발음한다는 행동영역을 만들고 훈련했습니다.

18.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②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덕분에 이번 6월 모의평가에 '관념적'이라는 개념이 출제되었음에도 막힘없이 풀 수 있었죠. 행동영역은 생각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서 말한 사고 교정도 있지만 배경지식도 있습니다. 단순한 어휘나 문학 개념어도 있겠지만, 기출 개념 사이의 연계된 지식을 체득할 수도 있는데요. 배경지식을 목적으로 한 공부는 지양되어야 마땅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지식의 경우에는 굉장히 쓸쓸합니다.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 하고, 특정 행위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채무자가 채권을 **①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한다.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의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다음은 작년 수능 '계약' 지문의 1문단과 2문단 일부를 발췌하여 가지고 온 것인데요. 밑줄이 그어진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채권과 계약이라는 개념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개념이 같다는 생각이 저는 현장에서 들더라고요. 바로 2019학년도 수능 '계약' 지문과 2011학년도 '수능' 채권 지문이요. 저는 두 개념을 이전에 이미 기출을 통해 익숙하게 접한 바 있었고, 때문에 현장에서 정의를 거부감 없이 바로 받아들여 지문을 잘 독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기출 사이의 연관된 지식들은 충분히 써먹을 수 있으니 이 또한 기출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메리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2. 기출 외 콘텐츠와 함께 '생각의 틀'을 첨예하게 만듭시다.

휴, 1번에 대한 내용 읽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과정을 시행한다면, 여러분들은 각자 나름의 '생각의 틀'을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유하자면, 이제야 대장장이가 칼 하나를 만들어준 거라고나 할까요? 여러분에게 남은 건 이제 반복적으로 기출을 학습하면서 칼을 쓰는 방법을 익히는 것과, 이미 만들어진 칼을 더욱 더 첨예하게 가는 과정, 그리고 실전에서 칼을 쓰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미 만들어진 칼을 더욱 더 첨예하게 가는 과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1 EBS 연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 한정**으로 공부는 하되, **깊게 공부하지 말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출 내 배경지식 공부하는 게 연계 독서 공부보다 실질적인 이득이 크고, 효율이 좋습니다. 선택과목의 경우에도 소재 연계가 고작인데 이걸 차라리 사설 실모를 통해 접하는 게 더 익숙하더라고요. 문학도 너무 깊게 하진 마시고, 기출을 기준으로 잡은 '생각의 틀' 안에서 각자 지문을 어느 정도로 읽을지 정해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운문은 공부하시고, 산문의 경우에는 인물 관계와 줄거리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2-2 LEET, M/DEET 지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들 중에는 과거 평가원이 출제했던 지문들도 있고, 꼭 평가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인 만큼 완성도가 높은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풀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나, 전체 지문을 전부 풀어본 결과 적절히 선별된 지문들만 접해보는 것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2019학년도 LEET 언어이해 지문부터 최근 평가원이 비문학에서 구성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에, 7월 25일에 실시될 2022학년도 LEET 언어이해까지 총 4개년 정도를 가볍게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3 사설 콘텐츠는 어떻게 이용해야 유용할까?

우리가 사설을 접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낯선 지문을 접하는 것.

그리고 기출과 함께 보면서 기출문제를 색다르게 바라보는 것.

자, 사설은 무얼 기준으로 모델링한 걸까요? 바로 기출이죠.

사설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실제 수능 및 모의고사를 출제하셨던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평가원만의 논리’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집단들이죠. 그렇기에 2-2에서 제시했던 지문들보다 다소 완성도는 떨어질 수도 있으나, 수능과의 유사성을 따진다면 사설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기출과 함께 본다는 게 가능한 거고요.

단, 사설과 기출을 병행하는 목적은 영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비문학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이나 지문 구성에서 넓게는 최근 3개년, 좁게는 작년 수능과 당해의 모의평가를 닮게끔 출제한 것이 보입니다. 이렇듯 원본 기출을 떠올리고 병행하면서 기출에 대해 만들어뒀던 행동영역을 낯선 문제를 통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국어 영역 중 사설과 평가원의 괴리가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실모를 제외하면 굳이 풀 필요성을 못 느끼겠고, 저 역시 사설 문학의 비중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설 문학을 풀 경우에는 앞서 말한 괴리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기출을 필수적으로 병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출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1번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우리의 ‘생각의 틀’이 망가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설 문학은 꼭 병행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크게 모래주머니 효과와 신유형 대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화작과 언어(문법)에서 보통 나타나는데, 평가원에서 출제한 원리를 복잡하게 내거나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논리/지식들을 활용하여 난이도를 높인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너무 사설 기준에 매몰되지 마시고 풀어본다는 데 의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자는 매체에 대한 이야기인데, 평가원 기출이 너무 적어서 사설로 신유형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노력으로 일궈낸 실력이, 국어 성적으로 이어지도록.

자, 이번에는 실전모의고사의 활용을 비롯한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1번에서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텍스트의 시험지를,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생각의 차이가 실력을 판가름하는 거겠죠.'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겹도록 언급했던 '생각의 틀'은 실력의 차이를 만든다면, 지금부터 언급할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점수의 차이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3-1 실전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모를 풀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실모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더라고요. 실모의 의의는 단순히 풀고 채점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사건을 덧붙이자면, 실모는 '실전 연습'을 하기에 적합한 콘텐츠는 아닙니다. 2번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문항은 평가원과 사설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평가원 문항을 푸는 느낌을 구현해낼 수 없어요. 평가원 문항의 느낌을 구현하려면 '깔끔한 어려움'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실모는 '깔끔함'과 '어려움'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깔끔하게 내자니 너무 쉬워지고, 어렵게 내자니 소위 말하는 더러운 문제들 내지는 문제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가원의 시간 분배를 연습하기는 살짝 애매해요.

다만 그럼에도 평가원과 비슷한 형태의 시험지를 45문제 단위로 풀어보는 경험은 의미가 있고, 실전모의고사만의 특징은 분명히 존재하기에 저는 잘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면 많이 풀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전모의고사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실모를 푸는 과정은 전제되어야 하겠죠. 실모는 평가원이 아니기에 문제와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건 부질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실모도 사설이니 2-3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행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추가해주시면 실모를 온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문제 및 지문에 대한 분석은 무용하다고 말씀드렸습시다만, 그럼에도 실모에서 분석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시험 운용에 대한 분석**입니다. 실모를 풀기 시작했다면 80분의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 점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앗아가는 쓸모없는 동작들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간단히 저를 예시로 들자면 저는 문제가 막힐 때 넘어가는 걸 작년 6평 이전에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23번 문제 하나에서 50분을 쓴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행동인데, 충분한 연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수능 당일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으므로 실모를 통해 거슬리는 동작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걸 목표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출 이해도가 높다는 걸 전제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실 비문학 문제의 원본을 직접 찾아내서 풀어보는 것**인데요. 약점을 찾았으니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연관 기출을 풀고 행동영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기준으로 잡고 풀면 우리가 만들었던 평가원을 기준으로 한 '생각의 틀'이 무너질 수 있기에 기출로 행동영역을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 과정을 혼자 하기 버겁다고 느끼신다면 강사 실모의 경우 관련 기출을 수록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어느 영역을 몇 분 안에 끝내겠다는 기준을 잡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관적인 예시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화작은 날로 먹는 파트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화작은 N분 컷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해 수능에서 화작이 어렵게 나오자, 많은 조상님들이 시간 관리에서 실패했다는 압박 때문에 전반적인 시험 운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구요.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푸는 게 아니라, 풀다 보니 일정한 시간에 맞춰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제풀이 순서를 시험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대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하세요. 수능은 운의 비중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시험이지, 행운이 올 거라고 자신하고 도박을 걸 만큼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상한선을 끌어올려서 나올 수 있는 점수대를 높인다는 발상도 좋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단 한 번이고 그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기에 결코 운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운이 좋아서 잘 보면 이상적인 결말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유감스럽게도 수능을 망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죠?

요약하자면, 실전모의고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쓸모없는 동작들을 걷어내고, 최종적으로 필요한 행동영역을 점검하면서 실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 활용하는 공부 재료입니다.

적절히만 사용한다면 하한선을 높이기 위해 가장 유용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3-2 만점을 목표로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 풀고 봤더니 다 맞은 겁니다.

이건 만점 대신 단어만 교체해서 각자 목표하는 등급을 넣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절실함은 한 번의 수험생활을 해본 입장에서 정말 잘 압니다. 당장 저만 해도 마음속으로 생각해둔 하한선보다 점수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적어도 **시험을 볼 때만큼은 점수고 입시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편하게 보세요**. 물론 굉장히 힘들다는 거 잘 압니다. 특히 수능의 경우에는 최소 1년에 가까운 시간의 노력을 하루에 결정하는 날인데 어떻게 점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도리어 독이 되어 발목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국어 시험을 보는 그 80분의 시간 동안은 오직 45문제에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3-3 손가락 걸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손가락을 건다는 표현은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밈이죠. 간단히 설명하자면, 1번 선지부터 본다고 할 때 1번이 답이라면 2-5번에 해당하는 나머지 선지를 보지 않고 넘기는 전략입니다. 주로 시간이 모자란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만 저처럼 간이 콩알처럼 작으신 분들께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좋게 말하면 꼼꼼한 학생들에게는 나머지 선지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막연함이 불안함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채택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 시간 관리에 대한 이모저모.

시간에 대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분명 시간을 남기고 풀었는데, 틀린 문제가 있는 케이스.

이건 글을 읽는 속도가 글을 이해하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즉, 눈이 머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교육청은 잘 보는데 평가원만 가면 죽을 쑤는 분들이 주로 A에 해당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케이스였는데, 기출 문장을 중심으로 눌러서 천천히, 하지만 깊게 읽는 법을 훈련하시면 남는 시간을 정확도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문학에서 시간 남고도 틀리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B. 시간이 모자라서 45문제를 전부 풀지 못하는 경우.

어쩌면 B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시간이 모자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다만 비문학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충분한 시간이 전제되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문학과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줄이고, 앞서 실모 얘기할 때 언급했던 쓸데없는 동작을 없애서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후자는 위에서 말한 바 있으니 전자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문학 위주로요.

첫 번째는, 문학에서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특히 운문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데, 시라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시라면 당연히 정서가 드러나겠죠? 시상이 전개된다는 표현도 그럴 거고요. 이런 당연한 선지에 대해 민감하게 따지려고 들지 말고, 빠르게 판단한 후 넘기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사소하지만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두 번째는, 오답이 아닌 정답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강사들 중에서도 해설이 갈리는 지문들이 많습니다. 당장 제가 봤던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산상의 노래' 지문 23번 문제의 4번과 같은 경우에도 해설이 갈리는데, 시험장에서 이걸 온전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정답만큼은 확실하니까, 적어도 문학에서는 정답을 찾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